

수영대회선수촌 코 앞 개 사육장 처리 골머리

창문 열면 사육현장 바로 보여
당국 철거 요구 농장주 버티기
평창 악몽 재현 우려 목소리

광주시 수영대회지원본부가 식용견(犬) 사육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영대회지원본부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수영대회 선수촌 앞의 불법 식용견 사육장을 철거하지 못했다. 행정당국의 줄기찬 철거 요청에도 사육장 농장주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미국 등 서방 언론이 올림픽과 무관한 한국의 개고기 문제를 거론하며 대회를 흠집했다는 점에서 평창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광주시수영대회지원본부 등에 따르면 수영대회 선수촌으로 쓰일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아파트(옛 송정주공)와 직선거리로 10~20m 떨어진 송정근린공원에는 수년 전부터 식용견 사육장이 자리 잡고 있다. 야트막한 동산 중턱에 자리잡았은 사육장은 선수촌 아파트 101~103동에서 훤히 내려다 보인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선수촌에서도 중간 중간 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다.

50평(150㎡)가량 되는 개 농장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울타리 안에 5평(15㎡) 규모의 파란색 양철지붕으로 된 조그만 우리가 10개 가량 들어서 있다. 사육장 규모만 보면 식용견 100~200마리를 키울 공간이 되나 현재는 우리 안에 10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다.

인근 밭에서 일하던 한 주민은 “농장주

가 최근 들어 개 사육에 관심이 없는 듯 얼굴 보기 힘들다. 수영대회가 열리면 외국인 손님이 밀어닥칠텐데 괜찮으려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장주의 관심이 줄어든 탓인지 더러 개는 안에 있는데 물과 음식이 없는 우리가 눈에 띄었다.

입주예정자 민원과 수영대회지원본부 요청에 단속권이 있는 광산구는 지속적으로 식용견 농장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농장주는 철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조성허가) 위반임을 지적하며, 수차례 원상회복(철거) 명령을 내렸

지만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행정대집행(철거), 고발 계획을 알리는 계고장을 사육장 입구에 붙이려해도 강하게 제지할 정도여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육장 철거의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사육장 부지 소유자가 농장주의 집안 사람이어서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농장주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관련법에 따라 200~3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 수영대회지원본부 관계자는 “우리의 개고기 문화의 옳고 그름이나, 사육

시설이 합법이나 불법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제대회 참여를 위해 광주를 찾는 손님에게 어떻게 맞이하고 배려하느냐는 문제”라며 “관할 구청과 농장주가 지혜를 모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세계 200여 개국에서 선수단과 임원 등 4000여명, 미디어 인력 2000여명 등 모두 6000여 명이 선수촌에 동지를 둔다. 마스터즈 대회(8월5일~18일)에 출전하는 아마추어 선수 등 관계자 약 6000명도 선수촌을 이용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4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 옆 동산에 자리잡은 식용견 사육장. 200여 개국 선수단과 임원, 미디어 종사자 등 6000여명이 묵을 선수촌임을 설명하며 “불법 사육장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에도 농장주가 버티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학생은 정치·학교 운영 참여 못한다” 광주 사립대들 인권침해 학칙 ‘버젓이’

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 시민단체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사립대학의 학칙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7개 사립대는 학칙에 학교 집회·행사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또 학생회와 학생단체 결성·구성 승인을 명시한 학교는 6곳, 간행물 발행·편집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학교도 10곳에 달했다. 학생의 정치·학교운영 참여 금지 3곳, 전

시·재난 등 이유로 학생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하는 곳도 2곳이나 됐다.

시민모임 측은 “2007년 국공립대, 2012년 사립대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의 학칙 개정 권고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학생활동이 대학으로부터 검열받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 삭제와 교육부 차원의 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모임은 지난 13일 광주지역 사립대학 학칙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교사에 폭언·폭행하고 교육 활동 방해 초등학생 교권침해 최근 5년간 5배 증가

중·고생은 절반 가까이 줄어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저지르거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4일 교육부가 내놓은 ‘2014~2018년 교권 침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의 교권 침해는 ▲2014년 42건 ▲2015년 85건 ▲2016년 98건 ▲2017년 167건 ▲2018년 208건이었다. 이 중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5건→43건→57건→105건→122건으로 5년 새 5배가 증가했다.

이는 초·중·고교의 교권침해 총 발생건수가 2014년 4009건에서 지난해 2445건으로 5년 사이 39%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초등학생의 교권 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 폭언 및 욕설, 성희롱 등 범죄 수준의 행위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은 2015년 4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늘었다. 성희롱·성폭력은 같은 기간 0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교사 모욕, 명예훼손, 협박, 교육 활동 방해도 지난해에만 총 50건이나 됐다.

같은 기간 중·고교생의 교권 침해 발생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중학생의 교권 침해 건수는 2014년 1793건에서 2016년 857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094건으로 소폭 늘었고, 고등학생의 교권 침해는 2014년 2128건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엔 1028건까지 줄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9
해질녘 19:29
달뜨기 15:31
달지기 03:22

무더운 스승의 날

맑고 일교차 크겠다.

광주	맑음	17/29	보성	맑음	13/26
목포	맑음	16/25	순천	맑음	16/27
여수	맑음	17/24	영광	맑음	14/26
나주	맑음	15/29	진도	맑음	13/26
완도	맑음	15/25	전주	맑음	16/28
구례	맑음	14/28	군산	맑음	15/26
강진	맑음	14/27	남원	맑음	15/29
해남	맑음	13/27	흑산도	맑음	14/22
장성	맑음	15/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남부 먼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남해 서부 먼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먼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 생활지수

	관심
	높음
	보통
	미세먼지

◇ 물때

	간조	만조
	04:14 16:53	11:18 23:52
여수	12:33 --:--	06:22 18:59

◇ 주간 날씨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16/30	16/29	16/26	15/28	16/25	14/26	14/26

분말·환 형태 식품 자석으로 쇳가루 제거해야

식약처 식품 기준 개정안 고시

앞으로 분말이나 환 형태의 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자석으로 쇳가루 등 금속이

불질을 제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고시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분말, 환 제품

제조 때,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쳐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분말, 환 제품을 제조하고자 원료를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 원료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력을 사용해 금속성 이물(쇳가루)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금속성 이물 제거에 사용하는 자석은 제조과정 중 자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교육부 교대 성희롱·성폭력 실태 특별전수조사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 최근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특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한 교대들을 우선으로 모든 교육대학교의 관련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교대를 비롯한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대학교 10곳이 교육부의 특별 조사 대상이 된다.

앞서 광주교대에서는 남학생이 수학여

행 중에 화장실에서 동기 여학생을 불법 촬영했다는 폭로(2019년 5월 10일자 광주일보 6면)가 나왔다. 남학생은 학우들에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각 교대들이 성 관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절차를 갖고 있는지, 사건 처리 절차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부적절한 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대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전남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여수 순천 광양 (061)284-0485 (061)683-0485 (061)726-0482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4.시공후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전남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여수 순천 광양 (061)284-0485 (061)683-0485 (061)726-0482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시술 | 남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채 김영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